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10.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5
V. 종합의견	18

I. 일반개황

면적	2,150천 km ²	G D P	6,378억 달러 (2015년)
인구	32백만 명 (2015년)	1 인 당 GDP	19,925달러 (2015년)
정치체제	군주제 (정교일치의 국왕 중심제)	통화단위	Saudi Riyal (SR)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3.75 (달러 페그제)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말 기준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15.7%에 달하는 2,666억 배럴의 원유(세계 2위)와 4.5%에 해당하는 8.3조m³의 천연가스(세계 6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부국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발상지로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니파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중동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이슬람적이고, 금욕적이며, 보수적인 사회 문화를 갖고 있는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임.
- 2015년 1월 Abdullah 국왕의 사망과 동시에 현 Salman 국왕이 즉위하였으나, 왕위계승자 교체와 국왕의 장남인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의 정부 내 권한 확대 등을 놓고 왕실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1년 1월부터 중동 민주화 혁명이 튀니지, 이집트를 거쳐 바레인, 오만 등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로까지 확산되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유화정책의 시행으로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저유가 지속으로 인해 경제성장은 1%대로 급속히 둔화

-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저유가 추세의 지속은 원유수출액 감소와 그로 인한 투자 감소 등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2.3% 포인트나 하락한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원유수출액 감소는 재정수지 적자 가중을 초래하였고, 이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사용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소비와 투자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음.
 -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보조금 감축과 그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건설 부문의 주요 대형 프로젝트 연기 또는 취소 등은 석유 부문과 비석유 부문의 동반 위축을 불러왔음.

□ 저유가 추세 지속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기록

- 2011~12년에는 고유가 지속으로 GDP 대비 10%대의 재정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어 왔으나, 2014년에는 하반기 이후의 급격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영 석유기업의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급감함에 따라 재정수지가 GDP 대비 -3.4%로 적자 전환되었음.
- 2015년에는 저유가 지속에 따른 세수 감소와 산업다각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및 예멘 내전 개입에 따른 국방비 지출 증가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5년 만의 최고 수준이자 G20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15.9%로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도 -13%대로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취소 또는 연기, 보조금 지급 축소, 공공 부문의 급여 삭감 등 정부지출의 감축, 경제다변화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균형재정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부채는 2016년 8월말 약 730억 달러(2,738억 리얄)로, 2014년 말 약 118억 달러(443억 리얄), 2015년 말 약 378억 달러(1,420억 리얄)에 비해 대폭 급증하였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보조금 삭감 등으로 인해 4%로 상승 추정

-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기초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 등에 힘입어 2~3%대의 안정적인 물가상승세를 유지해 왔으나, 재정수지 적자의 해소를 위한 보조금 삭감으로 2016년 초부터 휘발유 가격,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된 결과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 2.2%에서 2016년 4%대로 급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f
경제성장률	5.4	2.7	3.6	3.5	1.2
재정수지 / GDP	12.0	5.8	-3.4	-15.9	-13.0
소비자물가상승률	2.9	3.5	2.7	2.2	4.0

자료: IMF.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및 대외 원유수요 변동에 취약

- 정부의 산업구조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가 지속되어,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 2014년 기준 석유 부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GDP의 40% 이상, 재정수입의 80% 이상 및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공공 부문의 과도한 비중과 비효율성으로 구조적 취약성 가중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국영 석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민간 부문의 발전이 부진하며, 따라서 총고용에서 공무원 등 공공 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임.
- 다국적 컨설팅 기업 McKinsey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취업 인구의 약 70%가 정부, 공공기관, 국영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근무 중임.

- 이처럼 고용에서의 비중이 높음에도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10월 19일 Khaled bin Abdullah al-Araj 행정장관은 자국 공무원의 대다수가 하루 근무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함.

나. 성장 잠재력

□ 세계 최대의 에너지자원 부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말 기준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15.7%에 달하는 2,666억 배럴의 원유(세계 2위)와 4.5%에 해당하는 8.3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6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부국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원유는 대부분 동부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대표적 유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유전인 Ghawar(700억 배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유전인 Safaniyah(190억 배럴) 및 Abqaiq, Berri 등임.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2위의 원유 생산국으로, 2015년 기준 일일생산량은 1,201만 배럴을 기록함.
- 아울러, 금, 구리, 인광석, 보크사이트 등 비석유 광물자원의 매장량도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석유자원 개발에 국력이 집중되어 여전히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표 2 >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류 생산량 추이

단위: 만 배럴/일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산량	1,114	1,164	1,139	1,151	1,201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6.

다. 정책성과

□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다변화 추진의 성과는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05년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체제 및 지식 기반사회로의 변화를 목표로 장기전략 2024(Long-Term Strategy 2024)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5개년 개발계획을 매 5년마다 발표해 왔음.

- 아울러 경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사우디전력공사(SEC) 및 사우디아항공 민영화, 사우디텔레콤(STC) 증시 상장, 국영광업공사(MAADEN) 지분 매각 등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여전히 국영기업 및 정부 부문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의 높은 석유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의 정책 성과는 당초 목표한 수준에 비해 미미함.

□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적 개발계획 “Saudi Vision 2030” 추진 발표

- Salman 국왕의 장남이자 새로운 실권자인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는 2016년 4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추진을 위한 “Saudi Vision 2030”을 발표하였음.
- 2014년 이후 국제유가 급락과 그로 인한 정부의 재정수입 감소, 대 이란 경제제재 해제, Salman 국왕의 즉위 등 다양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개발전략의 수정이 요구되었음.
- “Saudi Vision 2030”은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계획임.
-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는 (1) 뿌리가 강한 사회(종교), (2) 성취감 있는 삶을 가진 사회(문화·체육), (3) 기반이 튼튼한 사회(주거·교육·보건의료)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성지순례객 수용 능력 증대(현재 800만 명 → 3,000만 명), 가계의 문화오락 활동비 지출 비율 제고(현재 2.9% → 6%), 평균 기대수명 연장(현재 74세 → 80세) 등을 추진함.
-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는 (1) 기회에 대한 보상(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육성), (2) 장기적 투자(민간·신성장 부문의 육성), (3) 사업환경 개선(경쟁력 제고), (4) 지정학적 장점 활용 극대화(무역·투자 증진)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실업률 하락(11.6% → 7%),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 제고(20% → 35%), 총고용의 여성 비중 제고(22% → 30%), 석유·가스 부문 국산화율 제고(40% → 75%), 공공투자기금(PIF)의 자산규모 증대(6,000억 리얄 → 7조 리얄) 등을 추진함.

- 또한 2030년까지 GDP 대비 FDI 비중 제고(현재 3.8% → 5.7%), 민간
부문의 GDP 기여도 제고(현재 40% → 65%), 비석유 부문 GDP 대비
비석유 부문 수출 비중의 제고(현재 16% → 50%) 등도 추진함.
-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는 (1) 효과적 통치체제, (2) 범
국가적 책임성 제고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의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비석유 재정수입 증대(현재 1,630억 리얄
→ 1조 리얄), 가계소득 대비 저축 비율 제고(현재 6% → 10%), 비영리
부문의 GDP 기여도 제고(현재 1% 이하 → 5%) 등을 추진함.

□ “Saudi Vision 2030”의 경제 부문 핵심은 Aramco의 개혁과 비석유 부문
의 육성 및 세입 증대

- 경제 부문에서 “Saudi Vision 2030”의 핵심은 국영 석유회사 Aramco
의 조직과 역할의 전면적인 개편 및 기업공개(IPO)로 마련한 재원을
투자하여 비석유 수입원을 창출하는 데 있음.
- 구체적으로는 빠르면 2017년 중 Aramco 주식(5% 미만, 본사 및 자회
사 포함)을 상장하고, 주식 매각자금 및 국가소유 부동산 매각자금을
PIF로 이전하여 PIF의 자산규모(현재 약 1,600억 달러)를 약 2조 달러
로 늘림으로써 투자수익을 대폭 증대시킨다는 계획임.
- 또한 Aramco를 다양한 산업분야를 포괄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현
재 5% 수준인 PIF의 해외투자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 중임.
- 아울러 PIF의 국내외 투자 수익, 재정개혁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비석유 부문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세입을 확
보하는 계획도 추진 중임.
- “Saudi Vision 2030”은 저유가 등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경제체제
의 근본적 개혁이 불가결하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최고위층의 인식
의 발로로 평가됨.
- 다만, 개혁을 추진할 정부 부처의 역량 부족, 보조금에 의존적인 국민
들의 급격한 개혁에 대한 반발, 기존의 보수 이슬람적 정치·사회 질서
와의 조화 유지 등이 향후 비전 실현의 과제로 지적됨.

□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 도입 예정**

-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들은 지난 5월 재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저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의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은 2018년, 바레인, 카타르는 2019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쿠웨이트는 2018년 또는 2019년 중 도입이 예상되어 2020년까지는 GCC 6개국이 모두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전망이다.
- GCC 6개국은 잠정적으로 5%의 공동 부가가치세율 적용을 검토 중임.

3. 대외거래

< 표 3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f
경 상 수 지	164,764	135,442	73,758	-53,478	-44,762
경 상 수 지 / G D P	22.4	18.2	9.8	-8.3	-7.0
상 품 수 지	246,571	222,557	183,995	47,278	53,803
수 출	388,370	375,901	342,457	202,269	211,465
수 입	141,799	153,344	158,462	154,991	157,662
외 환 보 유 액	640,975	710,485	718,921	603,986	529,943
총 외 채 잔 액	88,080	85,091	88,800	101,000	123,610
총 외 채 잔 액 / G D P	12.0	11.4	11.8	15.6	19.4
D S R	3.7	2.2	2.7	4.0	4.0

자료: IMF, EIU, OECD.

□ **저유가 추세로 인한 상품수지 흑자 위축으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

-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지속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석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왔음.
-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저유가 추세로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급감하며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2015년 GDP 대비 -8.3%로 적자 전환하였음.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계속되어, 2016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7%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감소 및 외채잔액 증가 추세 지속

- 외환보유액은 2014년까지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감소와 인프라 건설 추진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가 적자 전환하면서 외환보유액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외환보유액(억 달러) : 7,189('14) → 6,040('15) → 5,299('16f)

- 외자도입을 동반한 인프라 건설 사업과 지난 10월 175억 달러 규모의 미 달러 표시 국채 발행 등으로 인해 외채규모는 2015년 1,010억 달러에서 2016년 1,236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6년 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9.8%, D.S.R.은 4.0%로 전망되어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SAMA Foreign Holdings와 공공투자기금(PIF)은 2016년 9월말 기준 각각 5,984억 달러(세계 4위)와 1,600억 달러(세계 13위)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으로, 이는 대외지급능력 유지의 안전판으로 작용함.

* 다만, SAMA Foreign Holdings의 자산규모는 저유가 추세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收入)의 감소로 인하여 2015년 6월 말 6,718억 달러에 비해 10.9% 감소한 수준임.

□ 2016년 10월 사상 처음으로 미 달러화 표시 국채 발행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국제유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환보유고 확보 및 균형재정 유지를 위해 지난 10월 20일 사상 최초로 미 달러화 표시 국채를 발행하였음.

- 발행등급은 Moody's가 A1, S&P가 A-, Fitch가 AA-를 부여하였으며, 주관사는 Citi, HSBC, JP Morgan 등이 맡았음.

- 선진국의 저금리 기조 속에 특히 아시아 지역 투자자와 연금펀드,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국제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입찰금액은 총 67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에 발행총액은 당초 계획된 150억 달러에서 25억 달러 증가한 175억 달러로 마감되었음.

- 만기별 발행금액은 5년 만기 55억 달러, 10년 만기 55억 달러 및 30년 만기 65억 달러임.
- 발행금리는 5년 만기 2.588%(= T5 + 135bp), 10년 만기 3.407%(= T10 + 165bp), 30년 만기 4.623%(= T30 + 210bp)임. 대규모 초과수요로 인해 발행금리는 최초제시금리(IPG) 대비 5년 만기 25bp, 10년 만기 20bp, 3년 만기 25bp 인하된 수준에서 각각 결정되었음.

* T5, T10, T30 : 각각 미 국채 5년, 10년, 30년 만기 수익률

- 낮은 정부부채 수준에 따라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린 결과, 금번 발행은 올해 신흥국 시장에서 아르헨티나 국채 발행(금년 4월 165억 달러, 10년물 발행금리 7.5%)을 제치고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을 기록하였음.
- 금번 국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로 당분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 소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고정환율제 유지여부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불식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년 이후에도 국채의 추가 발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국영 석유회사 Aramco의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등 정부기관 채권, 회사채 등의 발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Salman 국왕, 2015년 즉위 후 왕위계승자 전격 교체

- 2015년 1월 제6대 Abdullah 국왕의 사망에 따라 제7대 국왕으로 즉위한 Salman 국왕은 즉위 연설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였고, 이전부터 前국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즉위 당시 국정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의회와 정당이 없는 대신, 국왕이 임명하는 자문위원회(150명)가 운영됨. 장관직은 4년마다 재·연임하는 형식이나, 평생직과 같을 정도로 내각 교체가 거의 없었음.

- 그러나 즉위 3개월 후 왕위 계승서열 제1위를 이복동생 Muqrin 왕세제(王世弟)에서 조카인 Muhammad bin Nayef 왕세자(Salman 국왕의 친형인 Nayef 前왕세제의 아들)로 교체하는 한편, 자신의 장남인 Muhammad bin Salman 왕자를 부왕세자(왕위 계승서열 제2위)로 책봉한 데 이어 제2부총리 겸 국방장관에 임명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형제 상속을 원칙으로 하여, 제2대 Saud 국왕 부터 현 Salman 국왕까지 모두 초대 Abdulaziz 국왕의 아들들이었음. 따라서 Salman 국왕의 왕위계승자 교체(조카를 왕세자, 장남을 부왕세자로 책봉)는 형제 상속의 원칙을 폐지한 것임.

□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의 실권 장악으로 왕실 내 갈등 및 정치적 불안 가능성**

- Salman 국왕은 올해 80세의 고령이며, 즉위 당시부터 파킨슨병 또는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올해 31세의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가 사실상의 국왕으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Salman 국왕 유고시 왕위 계승을 놓고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와 제1부총리 겸 내무장관인 Muhammad bin Nayef 왕세자 간의 권력 다툼, 그리고 두 사람을 각각 지지하는 왕실 내 왕족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실제로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가 주요 경제·외교정책을 주관하여 실권자로 부각되면서 사실상의 왕위계승자로 공공연히 간주됨에 따라 형제 상속의 원칙이 깨어진 데 대한 왕실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는 “Saudi Vision 2030” 발표 후 석유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을 교체하며 친위 내각의 구축 추진**

-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는 “Saudi Vision 2030” 발표 후 1995년부터 재직해온 Ali al-Naimi 석유부 장관을 자신의 최측근이자 왕족 출신인 Aramco 회장 Khalid al-Falih로 교체하였음.
- 아울러 석유부의 명칭도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Industry and Mineral Wealth)로 변경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정책 담당 장관은 전통적으로 왕족 출신이 아닌 전문 관료들이 역임해 왔으나,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는 al-Falih의 석유정책 담당 장관 임명을 통해 개혁 속도를 높이고, 석유 부문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는 중앙은행인 SAMA(Saudi Arabian Monetary Agency)의 총재도 Fahad al-Mubarak에서 前 SAMA 연구 및 국제문제 부총재인 Ahmed al-Kholifey로 교체하는 등 사실상 친위 내각의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실업 문제는 중요한 사회불안 요인

- 2014년 실업률은 공식적으로는 11.2% 수준이나 실제로는 최고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청년실업률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중요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2005년부터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을 75%로 높이는 등 산업인력 자국화(Saudization) 정책을 시행 중이나, 인구증가율이 높고 민간 기업들이 임금수준은 낮으면서 숙련도는 더 높은 외국 인력을 선호함에 따라 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공공 부문에의 과도한 고용 집중 현상으로 민간 부문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안팎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점도 고용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시아파에 대한 차별, 청년층의 왕실에 대한 불만 등도 사회불안 요인

- 전 인구의 약 15%로 추산되는 시아파 신도들(Shias)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의 전복을 노리는 극단주의 조직들 및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의 연계 의혹으로 정치·외교 분야의 공식 참여, 여행, 거주 등에 제한을 받는 등의 차별을 겪고 있음.
- 근래 이슬람 근본주의 교육을 받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왕족의 부와 권력 독점, 부패 만연 등을 비판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IS와 연계되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세력 확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2016년 7월 4일 IS의 소행으로 알려진 3건의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1건은 메카에 이은 이슬람 제2의 성지인 메디나의 '예언자 모스크' 근처에서 발생하여 이슬람 세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음.

□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나, 최근 국가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비판 제기**

- 정교일치의 국왕 중심 체제하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항의는 곧 이슬람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국왕 및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과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임.
- 아울러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경제적 유화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능력이 여전히 있음을 감안할 때,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다만, 2015년 9월 발생한 성지순례 참사 이후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한 국가 리더십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15년 9월 24일 이슬람 제1의 성지인 메카 외곽에서 열린 성지순례(하지) 행사에 사람이 몰려 약 1,450명이 압사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음.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고 축소 의혹과 함께 적절한 후속책의 부재로 국가 리더십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음.
- 아울러 최근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운동이 이슬람 고위 성직자 등 기존의 보수층은 물론 이슬람 근본주의에 경도된 일부 청년층으로부터도 반발을 초래하여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3. 국제관계

□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대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국민 대다수는 깊은 반미감정**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임. 미국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 확보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등 외부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지원 확보 측면에서 양국 간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지지, 걸프전 당시 미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등의 이유로 깊은 반미감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정부정책과 국민감정 간에는 괴리가 있음.
- 걸프전 당시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자 이슬람 제1의 성지 메카와 제2의 성지 메디나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이교도 군대가 들어왔다 하여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격분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반미감정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미 의회의 '9·11 소송법' 입법화로 미국과의 관계 악화 조짐

- 미국의 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이 테러 연루 의혹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9·11 소송법'(공식 명칭은 '테러 행위의 지원국들에 맞서는 정의')이 2016년 10월 정식으로 입법화되었음.
- 동법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에 의해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에 한해 테러 피해자들이 책임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테러자금 지원설 등 9·11 테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희생자 유가족이 미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
- Barack Obama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한 동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미 상원과 하원은 9월 28일(현지시각) 재심의 표결에서 각각 97 대 1과 348 대 77의 압도적 표차로 Obama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동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동법에 의한 실제 소송건이 발생할 경우 예멘 내전 개입 문제로 이미 냉각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숙적 이란과는 2016년 1월 단교하는 등 갈등 심화

-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팔레비 왕가 축출 이후 걸프 지역의 전통적인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며, 2005년 이란에서 강경 보수파 Mahmoud Ahmadinejad 前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음.

-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절대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의 맹주이자 공화국인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및 공화주의 세력이 걸프 지역에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2016년 1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반정부 시위 주도 혐의로 자국의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하자 이에 분노한 이란 시위대가 당일 밤 테헤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습격하고, 이튿날인 1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성지순례를 제외한 외교·무역 관계 단절을 선언하여 양국 관계가 완전히 냉각되었음.
- 이후 외교관계 복원을 희망한다는 발언이 양측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으나, 저유가 해소를 위한 OPEC의 원유 생산량 감축에 관한 의견 대립, 시리아 내전과 예멘 내전에서의 대립 등 모든 면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양국 관계에 단기간 내 긍정적 변화는 기대되지 않음.
- 시리아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반군(수니파)을, 이란은 정부(시아파)를 후원하고 있음. 반면 예멘 내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수니파)를, 이란은 반군(시아파)을 후원하고 있음.

□ 쿠데타, 테러 등으로 혼란한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 바레인은 수니파 왕정 국가이나 시아파 국민이 대다수이며, 2015년 1월 예멘에서는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반군 간에 내전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등 인접국들에서 시아파 세력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IS와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AQAP)를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활동이 점점 거세어지면서 역내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GCC의 리더로서 IS에 맞서 미국 및 여타 GCC 국가들과 연합하여 시리아, 이라크 내의 IS 기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GCC 수니파 국가들의 왕족, 고위성직자, 기업가 등이 IS를 '시아파를 궤멸시키려는 수니파 전사'로 여겨 은밀히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예멘 내전에 대한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의 적극적 개입 정책은 민간인 희생을 양산하여 국내외의 비판 초래

- 인접국인 예멘에서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 반군 간의 내전이 발생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정부를 돕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GCC 국가들과 연합군을 구성하여 예멘 내전에 개입, 국경 지대에서의 지상군 파병 및 폭격기를 동원한 예멘 공습을 지속하고 있음.
- 수니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와 아덴 만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인 예멘을 시아파 반군이 지배할 경우, 시아파의 맹주인 숙적 이란에 의해 시리아-레바논-이란-예멘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벨트’가 형성되어 자국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그러나 국방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가 주요 외교·안보기관의 수장직을 맡고 있는 다른 왕자들과 일절 상의 없이 공습 결정을 내렸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 이후 현재까지 예멘에서 1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하였음.
- 특히 2016년 10월 8일 예멘의 수도 Sanaa에서 반군 인사의 부친상 장례식장을 폭격해 14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자, 미국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성명에서 “미국과 사우디의 안보 협력은 백지수표가 아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판하였음.
- 현재 31세의 젊은이인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가 경험 부족, 충동적인 성격 등으로 인해 예멘 내전에서의 과도한 개입을 단행하여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왕실 내에서도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의 입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 능력 및 태도가 양호하고 리스케줄링 경험 없음

- 2016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6,039.9억 달러) 대비 12.3% 감소한 5,295.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동국 총외채규모의 약 4.3배에 달하는 수치임.

-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액 자체가 감소하고 여타 원유생산국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5년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교역규모는 290.4억 달러로 전년(449.8억 달러) 대비 35.4% 감소하였음.
- 2015년 수출은 자동차, 전기기기 등 중심 94.8억 달러(전년대비 14.4% 증가), 수입은 원유,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 195.6억 달러(전년대비 46.7% 감소)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폭이 개선되었음.

< 표 5 > 한 · 사우디아라비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4	2015	2016.1~9	주요 품목
수출	8,288	9,482	4,253	자동차, 전기기기, 건설광산기계 등
수입	36,695	19,561	11,084	원유, 석유제품, LPG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 기업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수주 감소

- 2015년 말 우리 기업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공사 수주 누계액은 1,338.4억 달러로,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총액(7,222.4억 달러)의 18.5%(전체 1위)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최근의 저유가 추세 지속은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분야인 석유 및 천연가스, 석유화학 부문의 발주 감소와 정부 및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발주처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일정 조정으로 이어져, 연간 수주액이 2013년 99.7억 달러에서 2014년 29.5억 달러, 2015년 35.9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2016년에 더욱 심해져, 2016년 1~9월 중 수주액은 10.7억 달러로 전년동기(32.6억 달러) 대비 33.8%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 (2016년 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34건, 36.6억 달러

- 우리나라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6년 6월 말 기준 신규법인 수 234건, 총투자금액 36.6억 달러이며, 2014~15년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의 61.5%에 달하는 등 최근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건설업(32.6억 달러, 투자누계액의 89.0%)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

V. 종합의견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말 기준 세계 2위의 원유 매장량과 세계 6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부국으로, 석유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
-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저유가 추세로 인해 201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치고,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는 GDP 대비 각각 -13%대와 -7%대의 적자를 기록하여 쌍둥이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외자도입을 동반한 인프라 건설 사업 등으로 외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총외채잔액의 4배 이상 및 단기외채잔액의 10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D.S.R.도 4% 안팎을 유지하는 등 대외지급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6년 4월 사회 전반의 개혁 추진을 위한 “Saudi Vision 2030”을 발표하였음. 경제 부문에서 동 비전의 핵심은 국영 석유회사 Aramco의 조직과 역할의 전면적인 개편 및 기업공개(IPO)로 마련한 재원을 투자하여 비석유 수입원을 창출하는 데 있음.
- 높은 실업률과 소수 시아파의 소외에 따른 불만 등이 잠재적인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양호한 경제여건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경제자유화정책 시행으로 대규모 소요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 다만, 현재 80세의 고령이며 건강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는 Salman 국왕 유고시 왕위 계승을 놓고 새로운 실권자인 Muhammad bin Salman 부왕세자와 제1부총리 겸 내무장관인 Muhammad bin Nayef 왕세자 간의 권력 다툼, 그리고 두 사람을 각각 지지하는 왕실 내 왕족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